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김진성¹⁾

요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한 데이터이며,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1,455 가구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 데이터로 선정된 자료는 SPSS 24.0 WIN과 AMOS 24.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을 낮추는 한편,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아버지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1) 연세대학교 신학과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자기통제능력(self-control)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송명자, 1995; 정옥분, 2004).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기에 기초가 형성되며, 이후 인지발달뿐 아니라 사회적 유능감, 정서, 도덕성, 정신병리 등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Bronson, 2000; Perry, 2002; Tangney, Baumsiter, & Boone, 2004). 실제로 만약 자기통제능력이 약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항상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이나 청소년기 비행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Wenar, 1998).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도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자기통제능력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나타남은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은 학업이나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정서 및 행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낮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보일 뿐 아니라 학습 동기나 성취도 낮았으며, 학습으로 인한 소진도 높았다(남상필·이지연·장진이, 2012; Mayer & Salovey, 1997). 유아에게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가 이후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 초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한다(Kopp, 1982). 자기통제의 발달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정옥분, 2004). 하나는 유아들의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한 외적인 감독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자기통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규준을 채택하고 그 규준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자기통제는 점차 내면화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통제능력의 발달에 있어 유아의 인지적 발달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모가 유아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고, 일관적이며, 유아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유아의 입장을 존중할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자녀에게 엄격한 통제와 부모가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재·이영환, 2010; 정옥분, 2004; 조운주·김은영, 2014; Eiden, Edwards, & Leonard, 2007; Malin et al., 2014; Meece & Robinson, 2013).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연구에 비하여 상당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부분 어머니에게 집중된 연구들로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양미숙, 2005), 아버지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유은희·임미옥, 2006),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대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정지영·도현심·최미경, 2005), 아버지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설득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이수재·이영환, 2010), 아버지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다는 연구(은채린·성소영, 2012) 정도이다.

한편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부모가 수행하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신념, 정서,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Belsky, 1984; 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김정주·김용미, 2011; 김혜영·고효정, 2012; 노보람 외, 2016), 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의 질은 낮아지고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하는 행동,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증가하였다(김가운·신혜영, 2013; 조선화, 1998; 최효식·연은모, 2014). 김미숙과 김바다(2016)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독립적 양육행동은 높고,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낮아졌다. 또한 김규수, 윤진주와 김선혜(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애착,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bidin, 1995). 특히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수경 외, 2016; 양진희·김영철,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Saisto et al.,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우울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높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수경 외,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반면 단기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양진희와 김영철의 연구(2016)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는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연구결과가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Belsky, 1984; Wilson & Durbin, 2010). 낮은 우울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최효식·연은모, 2014).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르러 아버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의 발달을 예측하는 유아발달의 주요한 변인인 자기통제능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 2,078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7차년도(2014) 데이터에는 총 1,620가구가 참여하였다. 표본은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직접 설문에 참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하도록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1,455 가구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우울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Kessler와 동료들(2002)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Kessler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우울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Kessler 우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455, 단위:명(%)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유아성별	남아	746(51.3)
	여아	709(48.7)
유아월령	72 ~ 74개월	507(34.8)
	75 ~ 77개월	862(59.2)
	78 ~ 79개월	86(5.9)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10(0.7)
	31 ~ 40세	935(64.3)
	41 ~ 50세	497(34.2)
	51세 이상	13(0.9)
아버지 소득	150만원 이하	25(1.7)
	151 ~ 250만원	169(11.6)
	251 ~ 350만원	338(23.2)
	351 ~ 450만원	360(24.7)
	451 ~ 550만원	264(18.1)
	551 ~ 650만원	129(8.9)
	651만원 이상	170(11.7)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7(0.5)
	고졸	387(26.6)
	대졸	909(62.5)
	대학원졸	152(10.4)

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 이상균(1999)이 번안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일부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1로 나타났다.

다.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복희와 동료들(1999)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부모 양육방식 척도 중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온정적 양육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측정도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6으로 나타났다.

라.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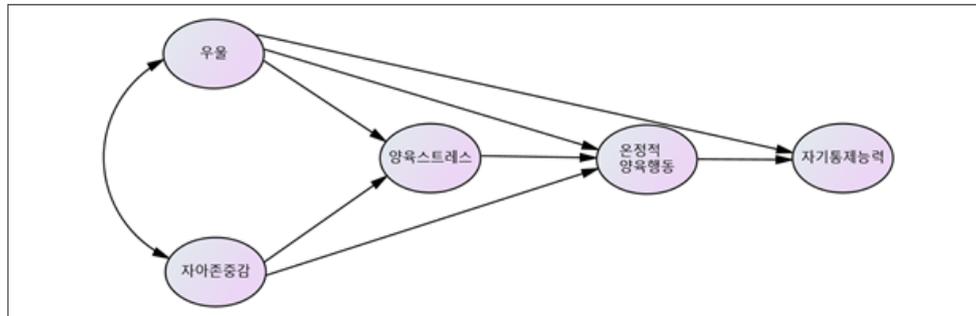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에서는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7로 나타났다.

마. 자기통제능력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Gresham과 Elliott가 개발하고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 중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통제를 측정한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가 부모의 지시에 잘 따르고, 게임이나 활동 시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며, 환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통제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데이터는 SPSS 24.0 WIN과 AMOS 24.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연구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다문항으로 이루어진 변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연구변인들의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수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과 자료 간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TLI(기준>.90), NFI(기준>.90), RMSEA(기준>.05), AGFI(기준>.90)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한 연구모형은[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평균은 최소 1.77에서 최대 4.13, 표준편차는 최소 .534에서 최대 1.024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이 최소 .107에서 최대 1.356, 첨도는 절대값이 최소 .00에서 최대 2.556의 값을 보였다. 이는 왜도가 2보다,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Curran, West, & Finch, 1996).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소 -.541에서 최대 .499의 상관을 보였으며,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r=-.057, p<.05$), 그리고 양육스트레스($r=-.167, p<.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은정적 양육행동($r=.144, p<.01$), 그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r=.124,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우울과 은정적 양육행동($r=-.284, p<.01$), 그리고 자아존중감($r=-.521, p<.01$)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양육스트레스($r=.499, p<.01$)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은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r=-.541, p<.01$)을 보였으며, 은정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r=.420, p<.01$)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r=-.540, p<.01$)을 보였다.

〈표 2〉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1455, 단위: 점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M	2.51	2.52	2.50	2.52	2.48	1.95	1.98	1.75	2.19	1.68	1.64	
SD	.541	.536	.534	.538	.535	.897	.890	.784	1.002	.782	.753	
왜도	-.463	-.438	-.357	-.482	-.288	.947	.799	1.163	.705	1.356	1.282	
첨도	-.972	-1.053	-1.149	-.982	-1.172	.859	.397	1.973	.058	2.556	2.149	
변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	3.42	3.66	3.43	3.09	3.67	3.81	2.25	2.13	2.21	1.88	2.05	1.84
SD	.778	.686	.788	.870	.706	.686	.847	.808	.871	.835	.843	.817
왜도	-.159	-.434	-.197	-.081	-.366	-.368	.357	.453	.504	.762	.540	.809
첨도	-.073	.440	-.217	-.469	.255	.335	-.313	-.039	-.059	.373	-.068	.416
변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M	2.66	3.02	2.10	3.95	3.77	1.93	4.13	2.20	3.84	3.66	1.86	1.77
SD	1.024	.890	.845	.751	.755	.828	.761	.868	.793	.803	.825	.833
왜도	.107	-.350	.492	-.475	-.230	.785	-.864	.332	-.373	-.290	.762	.910
첨도	-.698	-.188	-.111	.544	.021	.532	1.391	-.306	.000	-.005	.334	.351

주: 1. 자기통제능력1, 2. 자기통제능력2, 3. 자기통제능력3, 4. 자기통제능력4, 5. 자기통제능력5, 6. 우울1, 7. 우울2, 8. 우울3, 9. 우울4, 10. 우울5, 11. 우울6, 12. 온정적 양육행동1, 13. 온정적 양육행동2, 14. 온정적 양육행동3, 15. 온정적 양육행동4, 16. 온정적 양육행동5, 17. 온정적 양육행동6, 18. 양육스트레스1, 19. 양육스트레스2, 20. 양육스트레스3, 21. 양육스트레스4, 22. 양육스트레스5, 23. 양육스트레스6, 24. 양육스트레스7, 25. 양육스트레스8, 26. 양육스트레스9, 27. 자아존중감1, 28. 자아존중감2, 29. 자아존중감3, 30. 자아존중감4, 31. 자아존중감5, 32. 자아존중감6, 33. 자아존중감7, 34. 자아존중감8, 35. 자아존중감9

〈표 3〉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1455

구분	자기통제능력	우울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능력	1				
우울	-.057*	1			
온정적 양육행동	.144**	-.284**	1		
양육스트레스	-.167**	.499**	-.541**	1	
자아존중감	.124**	-.521**	.420**	-.540**	1

* $p < .05$. ** $p < .01$.

2. 모형검증

가.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전 단계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수들을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은 1671.358(df=686), TLI값은 .946, NFI값은 .932, RMSEA값은 .038로 모형은 자료에 잘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요인과 연구변수 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표준화 λ 의 C.R.값이 $p < .05$ 기준에서 1.96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4).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아존중감 1문항(C.R.=.712, $p > .05$)은 제외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기준 표준화 $\lambda > .5$)과 판별타당성(기준 $AVE > \rho^2$)을 검증한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육스트레스 2문항(표준화 $\lambda = .473, .398$)과 자기통제능력 2문항(표준화 $\lambda = .481, .421$)을 제외하였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최종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최종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λ	S.E.	C.R.	표준화 λ	AVE	ρ^2
자기통제 능력(A)	→ 자기통제능력1	1			.705	0.7307141	A&B 0.003481
	→ 자기통제능력2	.778	.044	17.722	.543		
	→ 자기통제능력3	.984	.045	21.855	.696		
	→ 자기통제능력4	1.034	.046	22.486	.726		
	→ 자기통제능력5	.886	.044	20.069	.626		
우울(B)	→ 우울1	1			.800	0.75475645	A&C 0.0196 A&D 0.024964
	→ 우울2	1.040	.024	42.857	.801		
	→ 우울3	1.253	.041	30.887	.753		
	→ 우울4	1.166	.030	38.687	.896		
	→ 우울5	1.253	.035	36.090	.849		
	→ 우울6	1.323	.037	35.607	.889		
자아 존중감(C)	→ 자아존중감1	1			.661	0.63437335	A&E 0.035344 B&C 0.330625 B&D 0.097344
	→ 자아존중감2	1.052	.037	28.475	.690		
	→ 자아존중감3	1.246	.056	22.081	.740		
	→ 자아존중감4	.950	.044	21.493	.615		
	→ 자아존중감5	1.269	.058	21.949	.720		
	→ 자아존중감6	1.107	.046	24.164	.688		
	→ 자아존중감7	1.147	.047	24.295	.703		
	→ 자아존중감8	1.320	.057	23.345	.788		
	→ 자아존중감9	1.309	.057	23.018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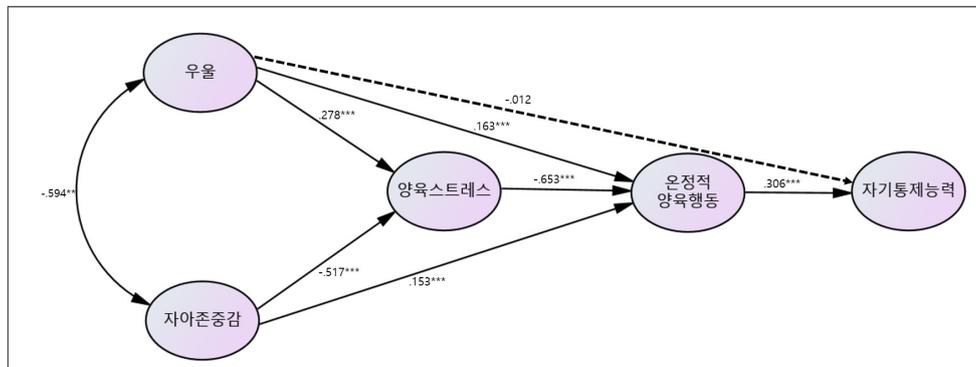
(표 4 계속)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λ	S.E.	C.R.	표준화 λ	AVE	ρ^2
온정적 양육행동 (D)	→ 온정적 양육행동1	1			.706	0.65793683	B&E 0.297025
	→ 온정적 양육행동2	1.042	.039	26.739	.716		
	→ 온정적 양육행동3	1.089	.053	20.630	.607		
	→ 온정적 양육행동4	1.215	.049	24.658	.747		
	→ 온정적 양육행동5	1.125	.043	25.893	.795		
	→ 온정적 양육행동6	1.139	.050	22.818	.710		
양육 스트레스 (E)	→ 양육스트레스1	1			.875	0.50949104	C&D 0.212521
	→ 양육스트레스2	.934	.019	49.053	.855		
	→ 양육스트레스3	.793	.031	25.247	.673		
	→ 양육스트레스4	.696	.032	21.905	.617		
	→ 양육스트레스5	.799	.032	25.341	.701		
	→ 양육스트레스6	.677	.033	20.378	.614		
	→ 양육스트레스7	.699	.037	18.773	.505		
	→ 양육스트레스8	.699	.035	20.199	.581		
	→ 양육스트레스9	.669	.035	19.108	.585		

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간의 인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5009.791(df=552), TLI값은 .837, NFI값은 .834, RMSEA값은 .075, AGFI값은 .777로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변수 간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기준으로 동일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의 측정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우울과 자기통제능력 간의 직접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은 1541.002(df=504), TLI값은 .959, NFI값은 .949, RMSEA값은 .038, AGFI값은 .924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48, χ^2 차이는 3468.789로, 자유도 50,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 67.50보다 컸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어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모형

〈표 5〉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NFI	RMSEA	AGFI
연구모형	5009.791	552	.000	.837	.834	.075	.777
최종모형	1541.002	504	.000	.959	.949	.038	.92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와 같다.

〈표 6〉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모수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λ	표준화 λ	S.E.	C.R.
우울 → 양육스트레스	.313	.278	.037	8.341
우울 → 온정적 양육행동	.131	.163	.028	5.945
우울 → 자기통제능력	-.006	-.012	.016	-.383
자아존중감 → 양육스트레스	-.587	-.517	.042	-13.866
자아존중감 → 온정적 양육행동	.124	.153	.035	3.547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465	-.653	.037	-12.645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166	.306	.028	5.945

연구문제1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eta=.278$, $p<.001$),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517$, $p<.001$).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12$, $p>.05$). 다음으로 연구문제2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beta=.163$, $p<.001$)과 자아존중감($\beta=.153$, $p<.001$)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653, p < .001$). 이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306, p < .001$).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과 4를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아통제능력 간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와 같이 우울에서 자기통제능력으로의 경로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7>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전체 효과(β)	직접 효과(β)	간접 효과(β)
우울 →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015(-.018)	.131(.163)	-.146(-.181)
자아존중감 →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397(.490)	.124(.153)	.273(.337)
우울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02(-.006)	-	-.002(-.006)
자아존중감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66(.150)	-	.066(.150)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77(-.199)	-	-.077(-.199)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와 이들이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손수경 외, 2016; 최효식·연은모,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양진희와 김영철의 연구(2016)는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양진희·김영철,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효식·연은모, 2014)는 지지하였다. 이는 Belsky(1984)와 Doherty, Kouneski, Erickson(1998)이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제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미숙·김바다, 2016; 이수재·이영환, 2010).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인 아버지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부모상담, 아버지 학교 등의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높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위험요인을 선별(screening)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진영·김진희·김영희,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우울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결과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 문제행동의 기저가 되는 자기통제능력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하였다는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아

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또한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온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양육코칭 및 육아학교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과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상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울은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져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우울감을 낮추는 한편,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을 논의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을 만 6세 유아를 둔 아버지만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이영환, 2014).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로 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녀에 대한 양육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정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긍정적인 양육이란,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양육방식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을 지배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방식이다(이경선, 2011; 조복희 외, 199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차원으로 함께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은 어머니에 비하여 가족·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상호적으로 영향을 준다(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이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에서 수행될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즉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요인에 대하여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그리고 정책, 직장문화, 가치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양적연구는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인간 내면에 담겨있는 본질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행동과 관련한 변수들, 그리고 유아의 자아통제능력 사이에 담겨있는 본질과 상호적 관계의 심층적 서술(thick description)을 담아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통하여 양적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가운·신혜영(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규수·윤진주·김선혜(2004). 유아의 사회 성숙도와 아버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2), 277-295.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숙·김바다(2016).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4), 21-38.
- 김정주·김용미(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1), 113-129.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영·고효정(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계명학교 간호과학, 16(1), 35-44.
- 남상필·이지연·장진이(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보람·은민선·이강이·김은영(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4), 155-179.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3.
-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미숙(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적응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진희·김영철(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2), 33-57.
- 유은희·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은채린·정소영(2012). 아버지의 리더십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43-63.
-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수재·이영환(2010).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유형 및 아버지 통제전략이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99-118.
- 이영환(2014).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아동발달. 경기: 교육과학사.
- 장진영·김진희·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지영·도현심·최미경(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305-319.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 37(10), 123-133.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운주·김은영(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 최효식·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 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Abidin, R. R. (1995). *The Parenting Stress Index(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 Cowan, C. P., & Cowan, P. A. (2010). Association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academic engagement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5(4), 495-51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77-292.
- Eiden, R. D., Edwards, E. P., & Leonard, K. E. (2007). A conceptu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kindergarten children on alcoholic families: Role of parenting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87-1201.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Malin, J. L., Cabrera, N. J., Karberg, E., Aldoney, D., & Rowe, M. L. (2014). Low-income, minority fathers' control strategies and their children's regulatory skill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5(5), 462-472.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 Meece, D., & Robinson, C. M. (2013). Father-child interaction: Associations with self-control and aggression among 4.5-year-old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5), 783-794.
- Perry, N. E. (2002).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Saisto, T., Salmela-Aro, K., Nurmi, J.-E., & Halmesmäki, E. (2008). Longitudinal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al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29*, 213-222.
- Tangney, J. P., Baumsiter, R. F., & Boone, A. I.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4.
- Wenar, C. (1998). 발달정신병리학 3판(이춘재 외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Wilson, S., & Durbin, C. E. (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67-180.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김진성, 연세대학교 신학과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이메일 elim2002@hanmail.net

Abstract

Th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Control: with Mediation of Warm Parental Behavior

Jinsung Kim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warm parental behavior of father on child's self-control. For the purpo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the seventh data collected for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PSS 24.0 WIN and Amos 24.0 WIN program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with 1455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ternal depression ha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had negative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Also, depression and self-esteem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warm parental behavior through parenting stress. Second, paternal depression did not influence child's self-control directly. However, through paternal warm parental behavior as a mediator,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influenced child's self-control indirectl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need for the programs, to reduce paternal depression, that influences parenting stress and professional support programs to promote positive self-esteem.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warm parental behavior, child's self-control